

인도 영상 콘텐츠 산업의 재편 동향과 남인도 영화

한국콘텐츠진흥원 용역과제 결과 보고서

연구책임자: 강성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연구원: 윤보람 (인도 네루대학교 대학원)

제출일: 2024. 10. 31

목차

- I. 인도 영상 콘텐츠 산업 현황
- II. 남인도 영상 콘텐츠 현황
- III. 남인도 영상 콘텐츠 부상의 원인
- IV. 땀루구 영화, 톨리우드(Tollywood)
- V. 인도 영상 콘텐츠 산업 전망 및 시사점



1. 인도 영상 콘텐츠 산업 현황

인도의 영상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것은 단연 영화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 ✔ 인도는 14 억이 넘는 인구와 세계 GDP 5 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1,700~2,000 편의 영화를 제작.
- ✔ 1955 년 288 개의 제작 편수를 기록해 세계 2 위의 영화 제작국으로 비상, 이후 비약적인 성장으로 1971 년에는 1 천 편을 넘기게 되었고, 2023 년에는 총 1,796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등 세계 최대의 영화 제작 국가로 자리 잡았음(FICCI & EY 2024).
- ✔ 인도가 영화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인들의 자국 영화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
- ✔ 하루 평균 1 천만~1 천 5 백만 장의 영화표가 판매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Srinivas 2004, 156), 매년 인도 영화 시장의 자국 영화 점유율이 85~9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인들의 자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충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BOLLYWOOD VS. HOLLYWOOD		
1,013	FILMS PRODUCED*	739
3.6 bil.	TICKETS SOLD	2.6 bil.
\$1.3 bil.	WORLDWIDE REVENUES**	\$51 bil.
12.6%	ANNUAL GROWTH RATE	5.6%
\$1.5 mil.	AVG. PRODUCTION COST PER FILM	\$47.7 mil.
\$500,000	AVG. MARKETING COST PER FILM	\$27.3 mil.

*National film production, 2001 ** Estimates, 2002
Dat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PWC, FICCI, BW estimates

[그림 1] 볼리우드와 할리우드 영화산업 비교 (출처: <https://hollywoodvsbollywood.e-monsite.com>)



[그림 2] 세계 주요 영화산업 시장 (출처: Forbes Magazine)

- ✔ 제작된 영화들 중 상당수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권은 물론, 유럽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 인도 영화 산업의 영향력은 남아시아를 넘어 점차 확장되고 있음.
- ✔ 최근 <RRR (Rise Roar Revolt, 이하 RRR)>(2022)이 2023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으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 2024년 칸 영화제에서는 <빛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All We Imagine As Light)>(2024)이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여 다시 한 번 인도 영화의 저력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음.
- ✔ 인도 영화를 지칭할 때 흔히 쓰이는 용어 중 하나는 ‘마살라 영화’임. ‘마살라’는 인도 요리에 사용하는 각종 향신료를 한 데 합쳐 놓은 것. ‘마살라 영화’는 하나의 영화 안에 로맨스, 코미디, 액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가 뒤섞여 있고 노래와 춤이 필수인 뮤지컬 장르의 영화를 일컫는 용어임. 이 모든 요소가 주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3시간 동안 펼쳐지며, 대부분의 마살라 영화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이 특징임.
- ✔ ‘마살라 영화’와 더불어 인도 영화와 동의어처럼 쓰이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볼리우드(Bollywood)’임. 이는 인도의 다양한 지역 영화 산업 중 일부를 지칭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함.
- ✔ 볼리우드의 중심지는 중서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州)에 위치한 뭄바이(현 뭄바이)로 이곳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어서, 외국 선박이 들어오는 주요 항구로서 해외 문물 유입과 자본 시장의 흐름이 빨랐음.
- ✔ 1913년 인도 최초의 무성영화인 다다사heb 팔케(Dadasaheb Phalke) 감독의 <라자 하리쉬찬드라(Raja Harishchandra)>와 첫 유성영화이자 힌디 영화인 <알람 아라(Alam Ara)>가 1931년 뭄바이에서 제작, 상영되었음.
- ✔ 인도 경제의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한 뭄바이는 거액을 투자한 영화 제작 및 각종 인프라 사용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했고, 이는 볼리우드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했음. 한 해 평균

볼리우드에서만 2백~3백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¹⁾,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2022년 사이에는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점차 회복세로 돌아와 2023년 약 218편의 작품이 제작되었음. (FICCI & EY 2024).

- ✔ 1957년 <마더 인디아(Mother India)>를 시작으로 <무갈-에-아잠(Mughal-e-Azam)>(1960), <솔레(Sholay)>(1975)를 비롯해 <라간(Lagaan)>(2001), <데브다스(Devdas)>(2002), <마이 네임 이즈 칸(My Name is Khan)>(2010), <둠 3(Dhoom 3)>(2013)등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당대 최고의 제작비를 기록하며 흥행에도 성공한 바 있음.
- ✔ 막대한 자본을 들인 영화가 다수를 이룬다는 특징 외에도 볼리우드가 다른 지역의 영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언어에서 찾을 수 있음.
- ✔ 볼리우드 영화는 힌디(Hindi)로 제작되어 대체로 북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디권(Hindi belt)²⁾ 사람들을 주요 관객층으로 삼는데, 힌디는 2011년 인구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43.63%가 모어(母語)로 사용한다고 밝힌 언어로 인도 정부가 인정한 22개의 공용어 중 가장 많은 수의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음.
- ✔ 볼리우드 영화는 힌디(Hindi)로 제작되어 대체로 북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디권(Hindi belt) 사람들을 주요 관객층으로 삼고있음.
- ✔ 볼리우드가 개봉작의 대부분을 다른 지역의 언어로 더빙하여 국내외로 배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볼리우드 영화는 가장 많은 수의 인도인이 널리 시청하는 영상 콘텐츠임.



[그림 3] 인도 지도 (출처: www.mapsofindia.com)

- ✔ 언어적 이점과 국내외의 상업적 성공을 바탕으로 볼리우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 영화

1) 2011년 206편, 2017년 364편

2) 수도권 델리 NCR 지역과 연방직할지 찬디가르(Chandigarh)를 비롯해 하리아나(Haryana),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우따르쁘라데쉬(Uttar Pradesh), 비하르(Bihar), 마다쁘라데쉬(Madya Pradesh), 우따라칸드(Uttarakhand), 자르칸드(Jharkhand), 차트티스가르(Chhattisgarh) 등 11개 주를 가리킨다.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져 옴.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현재 인도에서 가장 큰 영화 시장인 남인도뿐 아니라 기타 언어로 제작된 영화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었음.

- ❖ 이에 따라 인도 영화인들과 관련 학자들은 볼리우드의 헤게모니에 비판을 제기하고, 힌디 외 언어로 만든 영화를 ‘지역 영화(regional films)’로 치부하는 관례 또한 거부하고자 했음 (Velayutham & Devadas 2021; Raghavendra 2017; Velayutham 2008).
- ❖ 인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 언어를 가진 다문화 사회이고, 인도-아리안(Indo-Aryan) 계통부터 드라비다(Dravidia), 몽골로이드(Mongoloid) 등의 인종이 함께 살아가며, 힌두교를 비롯해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의 발상지답게 다양한 종교를 믿는 상황.
- ❖ 또한 공식적으로 기록이 불가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언어를 사용하며, 현재 인도에서 공용어로 인정된 언어만 힌디를 포함해 펀자비(Punjabi), 구자라띠(Gujarati), 벵갈리(Bengali), 따밀(Tamil), 텔루구(Telugu) 등 22 개에 이룸.
- ❖ 이에 따라 각 지역 및 언어별로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였으며, 영화 산업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생겨나고 발전해 왔음.



[그림 4] 인도의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의 포스터 (출처: www.imdb.com)

- ❖ 여러 지역의 영화 산업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남인도 지역임. 이곳만의 영화적 특성과 관객의 열기는 인도 내에서도 매우 독특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 지역적 특색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인도 영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 2020년 3월 25일, 인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봉쇄령을 시행했음. 이에 따라 모든 시설이 폐쇄되었고, 영화관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러한 봉쇄 조치 하에서, 영화 관람을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 하나로 꼽는 인도인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the-top, 이하 OTT)로 눈을 돌리게 되었음.
- ❖ 각종 언론 기사와 보고서를 보면, 봉쇄령 초기부터 OTT 사용자가 급증했는데, 봉쇄령 이후 2021년 7월까지 약 3억 5,300만 명이 OTT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인도 인구 4명 중 1명은 적어도 한 번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했다는 의미이고, OTT 서비스 업체들도 이 시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인도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OTT 시장이 되었음.
- ❖ 봉쇄령이 한창 시행 중이던 2020년 하반기부터 인도 영화 산업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남인도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OTT를 통해 인도 전역에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함. 남인도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타지역 인도인들도 자막과 더빙의 도움으로 남인도 영화를 시청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음.

- ✔ OTT 업체 ‘아마존프라임비디오(Amazon Prime Video, 이하 프라임비디오)’에 따르면, 남인도 영화 시청자의 50%가 남인도 외 지역민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북인도의 힌디 사용자들이 OTT를 통해 남인도 영화를 시청한 뒤, 감상평과 리액션 영상(영화를 보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표정과 코멘트 등의 반응을 찍는 것) 등을 SNS에 공유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음.
- ✔ 이전에 남인도 영화의 힌디 더빙판이 북인도에서 개봉을 한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음. 하지만 봉쇄령 기간 동안 OTT를 통해 볼리우드 영화 외에도 다양한 양질의 영화 콘텐츠가 존재함을 알게 된 인도 전역의 시청자들은 남인도 영화에 열광했고, 결과적으로 인도 영화 제작의 환경 및 유행까지 바꾸었음.
- ✔ 따라서 현 인도 영화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인도 영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II. 남인도 영상 콘텐츠 현황

1. 남인도 영화의 정의와 산업 규모

- ✔ 남인도 영화는 인도 아대륙의 남쪽에 위치한 다섯 개의 주에서 제작된 영화임. 안드라쁘라데쉬(Andhra Pradesh)와 텔랑가나(Telangana)의 언어로 만든 텔루구(Telugu) 영화,³⁾ 따밀나두(Tamil Nadu)의 따밀(Tamil) 영화, 까르나따까의 칸나다(Kannada) 영화, 그리고 깨랄라의 말라얄람(Malayalam) 영화를 포함.
- ✔ 이들 영화 산업은 볼리우드처럼 지역의 특색에 맞춰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텔루구어 영화와 말라얄람어 영화는 각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와 할리우드를 합쳐 ‘톨리우드(Tollywood)’와 ‘몰리우드(Mollywood)’라고 부름. 따밀어 영화는 영화 스튜디오가 밀접해 있던 꼬담바깜(Kodambakkam) 지역을 가리키는 ‘꼴리우드(Kollywood)’, 칸나다어 영화는 지역 특산품인 백단향(sandalwood)에서 따온 ‘샌들우드(Sandalwood)’라고 함.

‘볼리우드(Bollywood)’와 ‘톨리우드(Tollywood)’ 그리고 수많은 인도의 ‘~wood’들

- ✔ “Bollywood”라는 용어는 좁게는 봄베이(Bombay, 현재 Mumbai)에서 만들어지는 힌디(Hindi)영화를 가리키는 이름인데,⁴⁾ 봄베이 중심의 힌디 영화가 인도 상업영화를 대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용어는 “인도 영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됨.
- ✔ “할리우드”에 빗댄 합성어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연원은 정확하지 않은데, 미국 영화를 지칭하는 “Hollywood”는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의 지역 이름인데서 비롯되었고, 여기에 빗대서 수많은 혼성어들이 남아시아에서 사용됨.
- ✔ 1970 년대에 널리 사용된 것은 분명하고 봄베이가 인도의 할리우드라는 뜻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표현은 봄베이 상업영화의 성공과 맞물려 있음. 수많은 가설들과 이론들이 이 단어의 출처로

3) 안드라쁘라데쉬에서 텔랑가나가 분할되어 별도의 주 단위가 된 것은 2014년 6월 2일이다.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주 단위가 설정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인도는 연방제 국가이지만 ‘Federation’이 아니라 ‘Un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2014년 이전의 ‘안드라쁘라데쉬’는 지금의 안드라쁘라데쉬와 텔랑가나 주 양쪽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된다. 전통적인 두 주의 수도였던 하이데라바드(Hyderabad)은 2014년 분할 이후 양 주의 공통 수도로 10년간 유지된 이후, 안드라쁘라데쉬의 수도는 이제 아마라바티(Amaravati)이고 최대 도시는 비싸카빠트남(Visakhapatnam)이다.

4) 뭄바이에서는 마라티(Marathi)가 공식 공용어이다. 2011년 센서스에 따르면 뭄바이 인구는 2,200만명에 이르고 그 중 47%가 마라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힌디는 약 30%의 인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Gujarati를 사용하는 비중은 19%라고 한다. 이 숫자는 650만 인구의 뽀네(Pune)에서는 70%가 마라티를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뭄바이의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제시되고 있지만 명확한 것은 없으며, 최근 들어서는 “볼리우드”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 “할리우드” 영화 패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인도 영화”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뉘앙스가 강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됨.⁵⁾

- ❖ “Tollywood”는 현재 델루구 영화를 지칭하면서 “Bollywood”에 대칭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Tollywood”는 델루구어로 된 영화와 연관된 영화산업을 일컫는 용어임. 하지만 이 용어는 원래 웨스트벵골 주의 꼴까따 남부에 있는 툴리건즈(Tolly Gunj, 종종 ‘Tollygunge’라고 표기됨) 구역을 가리키는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이 툴리건즈는 “작은 뭍바이”(Mini Bombay)로 불리는 벵갈리 영화의 중심지임. 따라서 “톨리우드”의 원래 의미는 “벵갈 영화”이고 지금도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음.⁶⁾
- ❖ 따밀 영화를 가리키는 “Kollywood”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따밀 영화의 중심지인 꼬담바감(Kodambakkam)에서 따온 말임.
- ❖ 깨랄라에서 사용하는 말라얄람(Malayalam)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식민시대 용어인 “Mallus”라는 명칭에서 따온 깨랄라(Kerala) 영화를 가리키는 “Mollywood”라는 용어도 있으며, 까르나따까(Karnataka) 지역에 샌덜나무(Sandal)가 많다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아 칸나다(Kannada) 영화를 가리키는 “Sandalwood”라는 용어도 있음.
- ❖ 파키스탄의 영화산업이 뽀잡의 라호르(Lahore)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근거로 “Lollywood”라고 부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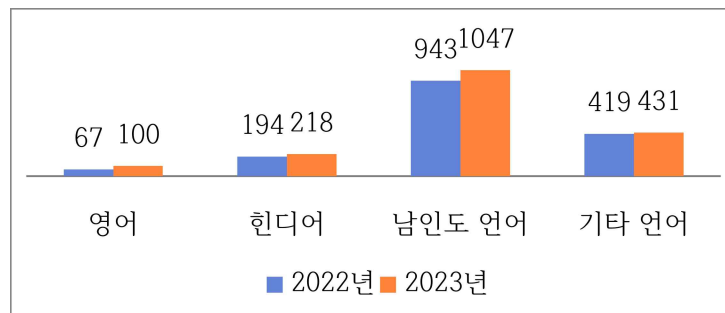


그림 5 | 인도 언어별 개봉 영화 수 (출처: FICCI & EY March 2024 Report)

5) 이 주제에 대해서는 Mehta and Pandharipande eds., 2010; Lee and Kolluri eds., 2016; Rai, 2009를 참조.

6) 1932년에 W. E. Deming이 American Cinematographer March 10/1에 기고한 글에 다음 구절이 나타난다: Sailing from India.., I have just received a radiogram..‘Tollywood sends best wishes’... In passing it might be explained that our Calcutta studio was located in the suburb of Tollygunge... After studying the advantages of Hollygunge we decided on Tolly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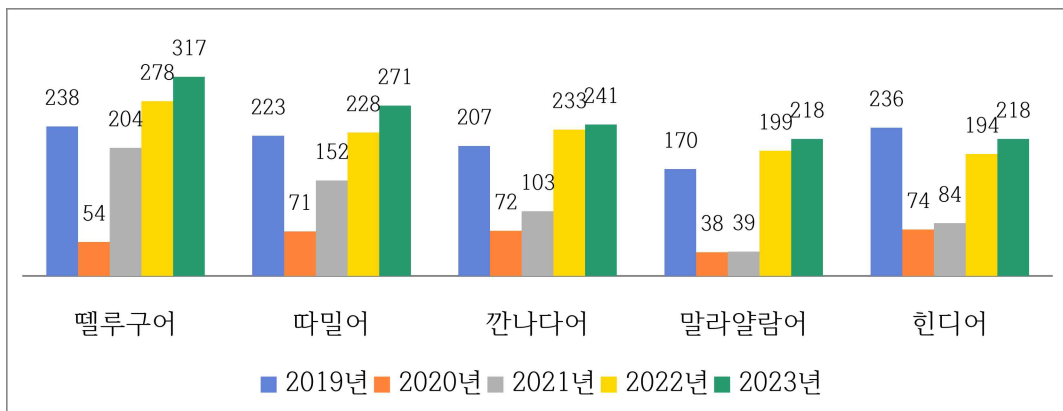
1998년에는 Sunday Times of India 7월 12일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Ever since Beder Meye Jyotsna became a runaway hit, Tollywood switched loyalties... Bangladeshi hits became the role model for Bengali film-makers.

2016 A. Nag in S. Datta et al., *Rituparno Ghosh* iii. 70에 아래 구절이 있다: There were chang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Bengali film industry that ushered in a revamp, whereby a local Tollygunge graduated into a global Tollywood.

(이상 모든 인용자료는 Oxford English Dictionary, s.v. “Tollywood (n.1),” July 2023, <https://doi.org/10.1093/OED/5792723517>에서 인용.)

이 모든 용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Tollywood”가 원래는 벵갈 영화 혹은 델루구 영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벵갈 영화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사실이다. 벵갈 영화는 인도의 영화사에서 특히나 예술영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화 전통으로 유명하다.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어서 다루지는 않겠다.

- ✔ 남인도는 역사적으로 언어 정체성과 자부심이 다른 주에 비해 강한 곳이며, 안드라쁘라데쉬는 텔루구어 사용자인 자신들과 당시 같은 주였던 따밀어권의 따밀나두를 분리해 달라며 단식투쟁과 파업 시위를 전개할 정도로 언어 정체성이 뚜렷했음.
- ✔ 따밀인들의 경우, 따밀어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 언어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1937년 중앙정부가 힌디 의무교육과 단일 공식어로서의 지위 문제를 꺼냈을 때, 큰 마찰을 겪었 바 있음.
- ✔ 이후 언어를 둘러싼 따밀나두와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은 수십 년간 이어졌고, 특히 1965년의 반(反)힌디 시위는 주의 집권당을 바꿀 만큼 파장이 큰 것이었고, 이러한 반-힌디 정서는 현재까지 이 지역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⁷⁾.
- ✔ 이렇듯 언어 정체성이 중요한 남인도에서 각각의 언어로 영화 산업이 발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사료됨.
- ✔ 남인도 영화 산업의 선두는 단연 텔루구와 따밀 영화임. 이 두 지역의 영화 산업이 나머지 두 곳보다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훨씬 크기 때문인데, 2011년 인도에서 제작된 영화 1,255편 중 제작 편수 2위가 텔루구(192편), 그 뒤를 따밀(185편)이 차지했음. 2017년에는 따밀(304편)이 2위, 텔루구(294편)가 3위를 기록했고, 2019년부터 볼리우드를 따라잡기 시작, 2021년에는 볼리우드의 기록을 훨씬 웃돌게 되었음.



〈그림 6〉 2019~2023년 개봉한 남인도 언어별 개봉 영화와 힌디 개봉 영화의 수
(출처: FICCI & EY March 2024 Report)

- ✔ 2023년 개봉한 총 1,796편의 영화 중 텔루구 영화가 317편으로 1위를, 따밀이 271편으로 2위를 기록한 바 있음. 뒤이어 칸나다 241편, 말라얄람과 힌디가 각각 218편을 기록했음.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년에도 따밀과 칸나다 영화는 힌디 영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작되었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텔루구와 따밀 영화가 힌디와의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렸음. 코로나 봉쇄령이

7) 2019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언어(One Nation, One Language)’라는 슬로건 아래 중앙정부의 장관 및 의원들이 ‘인도의 국어는 힌디’라고 주장하자 따밀나두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전개되었다. 따밀나두, 까르나타카, 케랄라의 주총리들은 각자 성명을 통해 인도의 다양한 언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헌법적이라 규탄하기도 했다. 힌디 패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흐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강성용, 2020: 175ff. 참조.

남인도 영화 산업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판단됨.

- ✔ 남인도 영화 산업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뿔루구와 따밀 영화계,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깐나다 영화계는 막대한 제작비 및 유명 배우를 앞세운 블록버스터 제작에 주력하며 영향력을 키워 왔음.
- ✔ 한편 말라얄람 영화계는 사실주의적 묘사와 다양한 촬영 기법을 특징으로 저예산 독립영화를 꾸준히 제작하며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중. 말라얄람 영화 산업의 규모가 뿔루구, 따밀, 깐나다 영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힌디 영화와 비교해 보면 이 또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음.

2. 남인도 영화 산업의 역사

- ✔ 남인도 최초의 영화는 1917년 제작된 R. 나따라자 무달리아르(R. Nataraja Mudaliar) 감독의 <끼짜까 바담(Keechaka Vadham)>인데, 감독은 팔께 감독의 <라자 하리쉬판드라>를 보고 영감을 얻어 1915년 마드라스(현 첸나이)에 ‘인디아필름 컴파니(India Film Company)’라는 영화 제작사를 세웠고 이는 남인도 최초의 영화사였음. 이후 무달리아르는 힌두교 대서사시 『마하바라타(Mahabharata)』⁸⁾의 이야기 중 일부를 각색해 영화를 연출했고, <끼짜까 바담>은 따밀 배우들을 캐스팅했기 때문에 최초의 따밀 영화로 여겨지기도 하며, 무달리아르 감독은 이후에도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다수 제작하여 따밀 영화의 기반을 닦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 1931년이 되면 남인도 첫 유성 영화가 개봉하는데, 이 또한 힌두교 신화와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한 <칼리다스(Kalidas)>라는 제목의 영화였음. 따밀어권과 뿔루구어권 배우들이 출연해 각자의 언어로 연기를 함으로써 두 언어 최초의 유성 영화로 기록되었음.
- ✔ 따밀어 영화, 즉 폴리우드는 마드라스의 꼬담바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무달리아르 감독의 인디아필름컴퍼니(India Film Company)가 이곳을 근거지로 삼았음. 이후 십여 개의 영화사들이 영화 산업 부흥과 함께 따밀나두 곳곳에 설립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곳이 AVM 프로덕션(AVM Productions, 1945), 모던영화사(Modern Theatres, 1935-1982), 제미니스튜디오(Gemini Studios 1940-1975), 비자야-보히니스튜디오(Vijaya-Vauhini Studios, 1948-1980년대), 그리고 프라사드스튜디오 (Prasad Studios, 1956) 등이었음.
- ✔ 이들 영화사들은 남인도 언어라면 가리지 않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작 편수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이 시기는 당시 따밀나두를 휩쓸었던 드라비다 운동(Draavidian Movement)⁹⁾과 맞물려 몇몇 영화사들은 사회개혁 이념을 담은 영화들을 다수 제작해 호황을 누릴 수 있었음(Pillai 2015).
- ✔ 그리하여 1940~50년대는 이른바 남인도 영화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시대가 되었고,

8) ‘위대한 바라따족’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이다. 썩쓰끄리맘(Sanskrit)으로 기록된 힌두교 대서사시 두 가문 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전쟁을 그리면서 인도의 설화, 역사, 종교, 철학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베다(Veda) 시기의 세계관을 담아 사제계급이 재정리한 세계관을 일반화시켰다는 면에서 우리가 요즘 ‘힌두교’라고 부르는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9)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따밀나두 전역에서 전개된 사회개혁 운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영화가 이들 스튜디오 내부에서 촬영되었음.

-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촬영기법과 장비가 도입되었고, 창작자들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영화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촬영했는데, 이는 당시 경제자유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서구 문화 동경과 맞물린 변화였으며,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내부 촬영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음. 초기 영화사들 가운데 AVM 프로덕션과 브라사드스튜디오 두 곳만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7] 따밀어와 텔루구어 최초의 유성 영화 <칼리다스> (출처: www.imdb.com)

3. 남인도 내 영화관 점유율

- 1940년대는 남인도 영화 산업계가 호황을 누린 시기였기 때문에 남인도 내 영화관 수가 인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였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통신복지국(Bureau of Outreach and Communication)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 전역에 약 315만 2,000개의 좌석과 이를 수용하는 8,700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이 중 남인도 다섯 개 주가 181만 6,000개의 좌석 및 4,150개의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다시 말해, 남인도가 전체 상영관의 47.78%와 전체 수용 좌석의 57.61%가량을 점유한다는 의미.¹⁰⁾
- 2024년 통계로 주별 상영관 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텔루구 언어권인 안드라쁘라데쉬(1,103)와 텔랑가나(606)를¹¹⁾ 합쳐 이 지역에만 1,709개의 상영관이 있고, 그 뒤를 이어 따밀나두가 1,190개, 까르나타카 901개, 케랄라가 745개의 상영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힌디 벨트의 북부 11개 주내 상영관을 모두 합쳐도(2,109개) 남인도 5개 주의 상영관 수(3,644)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

10)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data-stories/why-screens-and-seats-count-in-creating-hit-south-indian-movies/article65945389.ece> (2024. 08. 20. 확인)

11) 안드라쁘라데쉬

- ✔ 이렇게 많은 수의 영화관이 남인도에 생기게 된 것은 이곳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관람 습관과도 관련이 있음. 영화배우를 신처럼 여기는 팬덤(fandom) 문화¹²⁾가 1950년대부터 형성되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를 반복적으로 관람하였고, 상영관 수요 역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Jha 2021).
-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기술한 상영관 점유율에서 단관 극장의 점유율이 멀티플렉스(multiplex) 극장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 인도영화협회(Film Federation of India)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단관 극장 점유 상위 5개 주에 안드라쁘라데쉬가 2,809개로 1위, 이어서 따밀나두가 1,546개로 2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 깨랄라 (1,015개), 북부의 웃따르쁘라데쉬(970개), 까르나타까(950개) 순이었음¹³⁾.
- ✔ 단관 극장의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북인도 중심의 멀티플렉스 체인들은 첸나이와 하이데라바(Hyderabad), 벵갈루루, 꼬치(Kochi) 등 대도시부터 사업을 확장해 왔음. 대표적인 예가 델리(Delhi)를 근거지로 한 PVR 아이녹스(PVR-Inox)¹⁴⁾와 글로벌 체인 시네폴리스인디아(Cinapolis India) 등. 2020년부터 2021년 봉쇄령 기간 동안 남인도 영화 콘텐츠가 인도 전역에서 급속도로 인기를 끌자 이들 멀티플렉스 관계자들은 남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5개 주에서 향후 5년 내에 약 천여 개의 멀티플렉스 극장이 더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Jha 2021).

12) 팬덤 문화의 대표적 배우들은 N. T. 라마 라오(N. T. Rama Rao, 이하 NTR)와 시바지 가네산(Sivaji Ganesan, 이하 시바지), M. G. 라마찬드란(M. G. Ramachandran, 이하 MGR) 등이다. NTR은 안드라쁘라데쉬 지역의 전설적인 배우로 1940년대 후반 활동을 시작하여 50년대부터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였다. 시바지와 MGR은 따밀 영화계의 우상으로 이들이 배우로 활동하던 1950년과 1960년 사이 주 전역에 팬 클럽이 조직되었다. 세 배우 모두 이러한 팬덤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NTR은 안드라쁘라데쉬 (땔랑가나 분리 이전) 주총리를, MGR은 따밀나두 주총리를 역임했다.

13) <https://filmfederation.in/singlescreen.html> (2024. 8. 20. 접속)

14) 2023년 PVR Cinema와 Inox Leisure 두 업체가 합병한 뒤 PVR Inox로 명칭 변경

4. 주정부별 영화표 가격 상한제

- ✔ 멀티플렉스의 남인도 지역 확장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북인도와 달리 남부 지역은 주정부가 영화표 가격을 규제하고 있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영화표 가격 상한제는 남인도의 대다수 주(안드라쁘라데쉬, 텔랑가나, 따밀나두, 까르나따까)들이 시행하는 제도인데, 주별로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한 좌석당 가격이 400 루피를 넘지 않음. 북인도 역시 상영관 시설과 좌석 등급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상한가에 대한 규제가 없어 1천~1천 6백 루피를 넘는 경우도 있음.
- ✔ 따밀나두는 남인도의 다른 4 개의 주에 비해 영화표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2023 년 7 월 따밀나두 영화관장협회(Tamil Nadu Film Exhibitor's Association)는 주정부에 영화표 가격 상한제를 재고해 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음.¹⁵⁾
- ✔ 이들은 성명에서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이 없는 상영관은 150 루피,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50 루피, 아이맥스(IMAX) 상영관은 450 루피로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덧붙였다는데, 따밀나두 주정부가 마지막으로 영화표 가격을 인상한 것은 2017 년으로 당시 인상폭은 25% 수준이었음.
- ✔ 당시 3 관 이상의 멀티플렉스는 150 루피, 3 관 이하의 멀티플렉스는 108~118 루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다른 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안드라쁘라데쉬 주정부는 각각 177 루피, 295 루피로 가격을 정해놓고 있으며, 텔랑가나의 경우, 기본석이 295 루피, 등받이와 발판을 조절할 수 있는 안락의자석은 350 루피로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음.
- ✔ 낮은 영화표 가격은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고 영화 흥행을 돕기 위함이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이 최근 대두되고 있음. 아이맥스(IMAX)와 포디엑스(4DX) 등의 영화 포맷이 관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으나,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가격 상한제로 인한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새로운 포맷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 일례로 2023 년 4 월, 마니 라뜨남(Mani Ratnam) 감독의 따밀어 영화 <보니인 셀반-2(Ponniyin Selvan-2)>가 4DX 로 제작, 개봉되었으나 정작 따밀나두에 4DX 영화관이 없어 영화팬들이 벵갈루루(까르나따까) 혹은 꼬치(께랄라) 등 인근 주의 대도시로 원정 관람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함.¹⁶⁾
- ✔ 가격 상한제가 없는 북인도는 다양한 포맷의 영화 제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주정부가 가격 규제를 지속한다면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관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도 이어져 결국 관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지적도 있음.

15)

<https://indianexpress.com/article/entertainment/tamil/tamil-film-exhibitors-association-appeals-state-government-increase-cinema-ticket-prices-8765020/> (2024. 8. 20. 접속)

16)

<https://www.livemint.com/news/india/multiplexes-on-track-to-expand-footprint-in-south-india-11611556357496.html> (2024. 8. 20. 접속)

5. OTT 공개에 관한 규정

- ❖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남인도 영화가 인도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나 미디어 컨설팅 업체 오맥스(Ormax)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북인도에서의 흥행이 전년 대비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¹⁷⁾. 이는 볼리우드 영화계가 제작 편수나 흥행 성적 등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인도 영화들이 북인도 지역에서의 배급과 홍보, 그리고 개봉 및 OTT 공개 일정 등을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한 측면도 있음.
- ❖ 북인도에는 영화가 개봉한 이후 8주 안에 OTT 플랫폼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8-week OTT window rule)¹⁸⁾이 있고, 이러한 제한 규정에 입각해 PVR 아이녹스와 시네폴리스인디아 등이 소속된 인도멀티플렉스협회(Multiplex Association of India, 이하 MAI)는 이를 어기는 힌디 영화 혹은 힌디 더빙 영화를 자신들의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 여러 지역별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따밀나두의 경우, OTT로의 공개 유예 기간을 북인도보다 짧은 4주로 정하고 있음. 따밀어 영화 <지가르탄다 더블 X(Jigarthanda Double X)>(2023)는 북인도의 유예 규정이 8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OTT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멀티플렉스 체인은 이에 반대하며 해당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바 있어, 결국 영화는 북인도에서 단관밖에 확보하지 못해 흥행에 실패했음.
- ❖ <제일러(Jailor)>(2023)와 <레오(Leo)>(2023)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두 영화는 각각 라지니칸트(Rajinikanth)와 비제이(Vijay)라는 따밀나두 최고 인기 배우들의 작품으로 북인도에서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지만 OTT 공개 규정을 둘러싼 MAI와의 갈등으로 개봉에 차질을 빚었고, 특히 <레오>는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액션 오락물로 당초 힌두교 축제인 다사라(Dasara) 기간에 힌디 더빙 버전으로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MAI 측의 상영 거부로 무산되었음.
- ❖ 남인도 영화에 대한 북인도 관객의 관심과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남인도 영화가 전국적인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소재의 이야기’ 덕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 이는 힌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볼리우드 영화는 독창성이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다소 그렇다’는 답변은 38%, ‘매우 그렇다’는 32%였고, “볼리우드 vs 남인도 영화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라는 항목에서는 전자가 낫다고 답한 비율이 11%인 반면, 후자를 택한 비율은 46%였음. 남인도 영화를 선택한 답변자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72%가 남인도 영화가 더 나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음¹⁹⁾.

17) <https://www.ormaxmedia.com/insights/stories/indian-cinemas-cultural-crossover.html> (2024. 8. 20. 접속)

18) 우리나라의 ‘홀드백(Hold Back)’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현재 한국 영화의 OTT 플랫폼 공개는 극장 개봉 6개월 이후로 정하고 있다.

19) 액션 40%, 연기 38%, 연출 37%, 오락성 36% 등이 순위를 이어갔다(복수응답). 자세한 내용은 Ormax 기사(2024. 7. 12.)를 참조.



III. 남인도 영상 콘텐츠 부상의 원인

1. 독창적인 소재와 이야기

- ❖ 많은 이들이 남인도 영화 콘텐츠의 강점으로 꼽는 독창성과 참신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남인도 영화들이 등장인물의 카스트(caste)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의 카스트가 결혼과 입시, 취업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 사회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의 카스트는 직간접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까지 대부분의 인도 영화들은 주인공을 상층 카스트²⁰⁾로 설정하고 그들의 화려한 생활방식 및 서사를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해 왔음.
- ❖ 경제자유화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도입되고 해외 촬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화의 주인공들 역시 서구식 생활방식에 익숙한 상층 카스트의 청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 ❖ <딜왈레 둘하니아 레 자옹게(Dilwale Dulhania Le Jayenge)>(1995), <꾸츠 꾸츠 호따 해(Kuch Kuch Hota Hai)>(1998), <모합바뎡 (Mohabbatein)>(2000), <까비 쿠쉬 까비 감(Kabhi Khushi Kabhie Gham)>(2001), <깔 호 나 호(Kal Ho Naa Ho)>(2003), <까비 알비다 나 께흐나(Kabhi Alvida Naa Kehna)>(2006) 등의 힌디 영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영화들의 유행은 도시 빈민 혹은 농촌 지역 주민들과 하층 카스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유명 힌디 영화감독인 무께시 바뜨(Mukesh Bhatt)의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할 수 있음. 그는 “농촌 지역에는 대형 영화관도 없을 뿐더러 영화를 소비할 만한 관객층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수준에 맞는 영화를 제작하지 않을 것(Mode 2023)”이라 밝힌 바 있음. 따라서 볼리우드 영화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카스트 차별과 폭력, 농촌 문제 등은 외면하고 도시의 상층 카스트와 중산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 카스트 차별을 소재로 하여 하층 카스트 등장인물을 그린 볼리우드 영화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인도 영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분의 볼리우드 영화가 하층 카스트 등장인물을 사건의 피해자 혹은 주변 인물로만 그렸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함.
- ❖ 대표적인 예가 <다다끄(Dhadak)>(2018)와 <아티클 15(Article 15)> (2019)임. <다다끄>는 나그라즈 만줄레(Nagraj Manjule) 감독의 마라티어 영화 <사이라뜨(Sairat)>(2016)를 힌디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원작은 카스트가 서로 다른 젊은 남녀의 사랑과 그로 인한 고난을 그려내며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음. 따라서 리메이크작 역시 기대 속에서 개봉했으나 원작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적 장치인 남녀의 카스트 차이를 계급(class) 차이로 바꿈으로써 본래의 주제의식을

20) 카스트 위계상 상층부에 속하는 브라민(Brahmin), 크샤뜨리야(Kshatriya), 바이샤(Vaisha) 이 세 개의 카스트를 보통 상층 카스트라 부르고, 하층 카스트란 카스트 위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가장 밑바닥의 존재인 불가촉천민(Untouchables) 또는 달릿(Dalit)을 가리킨다.

퇴색시키고 하층 카스트의 존재를 지워버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Mishra 2018; Abraham & Barak 2023, 9). <아티클 15>은 브라마 출신 경찰이 달릿 피해자가 연류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이전과 똑같은 볼리우드의 공식, 즉 언제나 상층 카스트 주인공이 하층 카스트를 구원한다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 ✔ 볼리우드 힂디 영화가 반복적인 주제와 이야기를 답습하는 동안 남인도 영화들은 소재와 주제 의식을 다양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왔음. 기존의 설정에서 벗어나 영화의 주인공은 하층 카스트, 악역은 상층 카스트로 묘사하고, 주인공이 악역으로부터 받은 차별과 억압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내용의 영화들이 등장했음.
- ✔ 앞서 기술한 바쁘 감독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인도 영화는 하층 카스트에게 영웅적 면모를 부여하는 것을 금기처럼 여겼는데, 하층 카스트란 더럽고 약한 존재이며, 영화를 소비할 자원조차 없다고 보았기에 이들의 이야기에 영화인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라 사료됨.
- ✔ 이와 다르게 남인도 영화계는 이런 편견을 깨고 위계 전복적이며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내용의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였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 봉쇄령 시기부터 주목받은 <까르난(Karnan)>(2021)이나 <사르뱃따 빠람바라이(Sarpatta Parambarai)>(2021), <자이 빔(Jai Bhim)>(2021) 등의 따밀어 영화와 <부쉬빠: 더 라이즈(Pushpa: The Rise)>(2021) 같은 텔루구어 영화, <KGF>(2018; 2022) 시리즈, <칸따라(Kantara)>(2022) 등의 칸나다어 영화는 가난한 하층 카스트 출신의 주인공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대변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운다는 공통점이 있음.
- ✔ OTT 를 통해 이러한 영화들을 접한 남인도 외 지역의 관객들은 그간 볼리우드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소재와 서사에 신선함을 느끼고 열광했던 것이라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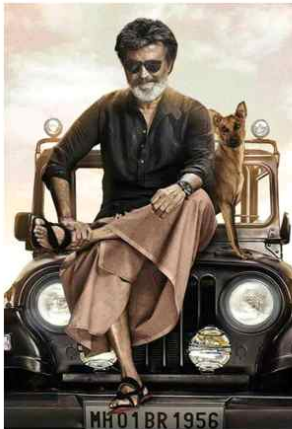


|그림 8| 왼쪽부터 <까르난>, <사르뱃따 빠람바라이>, <자이 빔>, <KGF: 챕터 1>, <부쉬빠: 더 라이즈>, <칸따라>
(출처: www.imdb.com)

- ✔ 하층 카스트 서사의 영화, 그중에서도 ‘달릿 영화(Dalit Cinema)’를 선도하고 있는 곳은 단연 따밀 영화계임. 달릿 영화란 작품 속에서 달릿 주인공을 내세워 달릿 서사를 구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출자 자신도 달릿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Yengde 2018, 503) 특징이 있음. 마라티어 영화인 <판드리(Fandry)>(2013)와 <사이라뜨>도 달릿 영화로서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주류 상업 영화로 인정받으며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따밀나두의 달릿 영화들이었음.
- ✔ 따밀 달릿 영화로는 란지뜨(Pa. Ranjith) 감독의 <까발리(Kabali)>(2016), <깔라 (Kaala)>(2018), <사르뱃따

빠람바라이(Sarpatta Parambarai)(2021), <탕갈란 (Thangalaan)>(2024), 베프리마란(Vetrimaaran) 감독의 <아수란(Asuran)>(2019), 마리 셀바라즈(Mari Selvaraj) 감독의 <빠리에룸 빼루말(Pariyerum Perumal)>(2018), <까르난(Karnan)>(2021), <마만난(Maamanan)>(2023), 냐나벨(T. J. Gnanavel) 감독의 <자이 빔(Jai Bhim)>(2021) 등을 꼽을 수 있음.

- ❖ 이들 영화는 팬층이 두터운 인기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블록버스터 영화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달릿만의 상징과 비유를 영화 속에 녹여냈다는 점이 특징임. 당대 최고의 따밀 배우인 라지니칸트와 다누쉬(Dhanush), 비끄람(Vikram) 등이 달릿 주인공을 맡았고, 카스트 폐지와 달릿의 해방을 주장한 암베히까르(B. R. Ambedkar)²¹⁾의 사진이나 부처상도 이들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겪는 차별과 억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출이 가능했던 것은 위에 열거한 감독들이 모두 실제 달릿 출신으로서 (달릿) 당사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그림 9] 그림 10. 라지니칸트가 주연을 맡은 달릿 영화 <깔라>의 포스터와 극 중 한 장면.
포스터에서 주인공 깔라가 앉아 있는 차량의 번호판은 암베히까르의 이름 빔 라오와 그가 불교로 개종한 연도(1956년)를 의미. 달릿 지도자인 깔라(가운데)는 노동자와 빠리야르를 상징하는 검은 셔츠를, 지역 정치인이자 악역인 하리 다다(오른쪽)는 상층 카스트 힌두들이 즐겨 입는 흰 셔츠를 입고 있다. 본래 힌두교에서 흰색은 선(善)과 청정함을, 검은색은 악(惡)과 부정함을 상징하는데, 영화는 이 장면을 통해 기존의 관념을 비틀며 진정한 영웅과 악인은 누구인지 물음.

(출처: www.imdb.com, www.thequint.com)

- ❖ 달릿의 시선으로 그린 달릿 영화는 그동안 볼리우드가 지속적으로 비판 받았던 여러 문제점을 관객들로 하여금 자각하게 했는데, 기존의 볼리우드 영화들은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고 서사나 인물의 다양성 또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뜻임.
- ❖ 무엇보다 브라만 주인공만이 구원자가 되어 사회 약자를 돕는다는 설정이 카스트 계급주의와 시혜적 관점에 바탕을 두었음을 관객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남인도 영화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21) 독립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헌법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불가촉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마하르(Mahar)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간디(M. K. Gandhi)에 맞서 달릿만의 분리선거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카스트 폐지와 달릿 해방에 관련된 저술, 시민 운동에 힘쓰며 '달릿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고, 1956년에는 약 50만 명의 달릿과 함께 불교로 개종하기도 했다. 강성용 2020, 179ff. 참조.

보임.

2. 영화 산업과 정치의 상관관계

- ✔ 위계 전복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영화가 따밀나두에서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임. 따밀나두는 19세기 후반부터 퍼진 반(反)브라민, 반(反)북인도 정서를 기조로 따밀과 드라비다 정체성을 강조하고 카스트 불평등에 반대한 일련의 사회 운동이 큰 영향을 미친 곳이어서, 영화인들 역시 이러한 운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이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영화가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 이로써 따밀나두 정치와 영화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회·정치 지형을 형성해 왔음.
- ✔ 우선 19세기 중반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이 지역은 따밀어 문학과 회화 등 예술 분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결과 따밀인들 사이에서 ‘참된 드라비다인 혹은 따밀인이란 외부의 침략자인 북쪽의 아리안(Aryan)이 전파한 카스트 위계를 따르지 않는 평등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음.
- ✔ 요컨대 이들의 주장은 드라비다 문명과 따밀인은 북인도의 쌍쓰끄리팜(Sanskrit)과 아리안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브라만은 침략자의 후손인 반면, 비(非)브라만은 이 땅의 진정한 토착민이라는 것이었음. 비브라민은²²⁾ 대개 카스트 위계상 슈드라로 분류되며 현재도 따밀나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인데, 이러한 집단 정체성의 자각을 바탕으로 따밀나두 전역에 비브라민 운동(Non-Brahmin Movement)이 전개되었고, 이들은 브라민에 대항하고자 특히 교육에 힘써 왔음.²³⁾
- ✔ 초기에 교육 운동으로 시작했던 비브라민 운동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운동으로 성격이 변하였음. 당시 따밀나두 전체 인구의 3%만을 차지하던 브라민이 경제적, 정치적 혜택 및 정부 요직을 독점하는 상황에 반발한 비브라민들은 정치 세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으며 그리하여 1916년 비브라민을 중심으로 정의당(Justice Party)이 창당되었고, 이들은 비브라민을 위한 분리선거구를 주장하기도 했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폭넓은 지지 기반이었기에 비브라민들은 불가촉천민, 즉 달릿을 포섭하게 되었음(Shiga, 2014, 302).
- ✔ 브라민 중심주의와 카스트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1940년대가 되면 자존 운동(Self-Respect Movement)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됨. 이 운동의 지도자는 페리야르(Periyar) 혹은 E. V. 라마스와미(E. V. Ramaswamy)로 불리는 사회 개혁가이자 정치인였음. 그는 본래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이하 INC) 소속이었지만 당이 브라민의 권익만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여 1925년 당적을 정의당으로 옮기게 되고, 이후 1944년 당명을

22) ‘Brāhmaṇa’라는 표현은 바르나 체계에서 최상층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제계급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생형들이 만들어졌다. 그 중 인도식 영어에서 관용화된 표현 중 하나가 ‘브라흐민’(Brahmin)이다.

23) 남인도에서 영화가 전통적인 카스트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꼽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르나(Varna) 체계에서 최상층을 차지하는 브라만 인구의 비중이 남인도에서는 절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꼽아야 한다. 예로 북인도 웃따라칸드주에서 힌두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브라만은 남부 따밀나두주에서는 3%가 되지 않는다. 즉 다수 지배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안에서 브라만들의 정치세력화가 어려운 근본적인 인구학적 구조를 지닌 남인도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발전 면에서 북인도와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드라비다연맹(Dravida Kazhagam, DK)으로 바꾸면서 자존 운동을 조직하였는데, 이는 불가촉성에 대한 전통을 거부하고 카스트를 철폐해야 한다는 암베드카르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었음(Shiga 2014, 307).

- ✔ 당시 힌두 사원은 불가촉천민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빼리야르는 누구나 사원 입장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서로 다른 카스트일지라도 혼인이 가능하다고 설파했음. 또한 힌두교의 브라민 사제가 결혼 의례를 관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 운동식 결혼을 확산시키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빼리야르는 힌드를 인도의 국어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1930년대 반-힌디(anti-Hindi)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음.
- ✔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따밀어, 따밀 문화 등 드라비다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드라비다 운동(Draavidian Movement)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그의 정치적 유산은 따밀나두가 현 사회의 모습을 갖추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음. 따밀나두의 영화 산업 역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전했으며, 빼리야르의 사상과 이념을 따르는 영화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 ✔ 극작가인 안나두라이(C. N. Annadurai)와 까루나니디(M. Karunanidhi), 그리고 배우인 시바지 가네산(Sivaji Ganesan, 이하 시바지)과 M. G. 라마찬드란(M. G. Ramachandran, 이하 MGR) 등은 빼리야르의 자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영화계의 대표적 인물들.
- ✔ 당시 INC가 영화를 도덕적 타락의 원흉으로서 인식한 것과 달리, 이들은 영화야말로 이념 전파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반-브라민과 반-북인도 관련 소재를 영화에 적극 사용하였고, 이들 영화에서 브라민은 대체로 사악하거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되었음(Hardgrave, Jr. 2008, 63).
- ✔ 이러한 방식은 안나두라이가 빼리야르와의 의견 차이로 DK를 떠나 1949년 드라비다진보연맹(Dravida Munnetra Kazhagam, 이하 DMK)을 창당한 이후에도 줄곧 이어졌음.
- ✔ 대표적인 작품이 까루나니디가 각본을 쓰고 시바지가 주연을 맡은 <빠라삭티(Parasakthi)>(1952)라고 할 수 있음. 영화는 드라비다인의 땅을 찬양하는 노래를 비롯해 힌두교의 우상숭배와 브라민 사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영화의 성공으로 까루나니디와 시바지는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음.
- ✔ 이후 시바지가 팬덤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하자 MGR이 그의 자리를 채웠고, 그는 영화를 통해 DMK의 프로파간다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한 배우로 평가받았음.
- ✔ 이때 MGR과 함께 연기한 배우가 자야랄리타(J. Jayalalitha)인데, 두 배우는 <나도디 만난(Nadodi Mannan)>(1958), <남 나두(Nam Nadu)>(1969), <아디마이 뎀(Adimai Penn)>(1969) 같은 작품에서 지주제를 비판하거나 자존 운동식의 결혼 장면 등을 통해 당의 인기는 물론 배우 본인의 명성 또한 높였음. 특히 MGR의 팬클럽은 따밀나두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이러한 팬덤은 이후 그가 DMK를 탈당하여 전인도 안나드라비다진보연맹(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 이하 AIADMK)을 창당할 때에도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음.



그림 10 | 까루나니디가 각본을 쓰고 시바지가 주연을 맡은 영화 <빠라삭티>. 대표적인 DMK 프로파간다 작품으로 꼽힌다. (출처: www.imdb.com)

- ❖ 빼리야르에서 시작된 반-카스트적 평등 이념은 DMK와 AIADMK로 전승되었고, 1967년 안나두라이가 드라비다 정당 소속으로 첫 주총리가 된 데 이어 까루나니디, MGR, 자야랄리타라가 영화인 출신으로서 주총리직을 번갈아 역임하였음²⁴⁾.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빼리야르의 유산이 따밀나두 사회와 정치 지형을 형성하여 이 지역을 인도의 다른 주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사료됨.
- ❖ 비브라민 운동으로 따밀나두는 인도의 어느 지역보다 반-브라민 정서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지만,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집단은 당연하게도 이 운동을 주도했던 비브라민들, 즉 행정상 기타후진계급(Other Backward Classes, OBC)으로 분류되는 슈드라였음.
- ❖ 이들은 점차 주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때 드라비다 운동과 비브라민 운동에 동참했던 달릿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권익 향상에만 몰두했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급기야 90년대에는 특정 비브라민 카스트를 미화하는 영화가 다수 개봉했고(Damodaran and Gorringer 2017), 이 영화들은 카스트 집단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나 그 결과, 달릿을 향한 혐오와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났음²⁵⁾. 이로써 빼리야르가 남긴 정치적 유산인 반-카스트주의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었음.
- ❖ 달릿들도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혹은 정당이 절실했고, 그리하여 달릿 정치가 부상하게 되었음. 또한 90년대 말, 정당 연합을 통해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때 달릿 정당과 같은 군소 지역 정당도 정권 수립을 위한 중요 교섭 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달릿 정당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점차 넓혀 갔음.
- ❖ 2021년 따밀나두 주의회 선거에서도 현 주총리인 스탈린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달릿 정당인 자유팬서당(Viduthalai Chiruthaigal Katchi, 이하 VCK)²⁶⁾의 대표 띠루마발라반(Thol.

24) 1967년 안나두라이의 당선 이래 따밀나두에서 주총리를 역임한 인물은 단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영화인 출신이었다. 현재의 주총리 역시 까루나니디의 아들이자 영화배우였던 DMK 소속 스탈린(M. K. Stalin)이다.

25) 대표적인 예가 1995년 따밀나두의 꼬디얀쿨람(Kodiyankulam)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다. 이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OBC 카스트 집단이 달릿 마을을 습격하여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마리 셀바라즈 감독의 <까르난>이다.

Thirumavalavan). 그는 DMK 가 전통적 지지기반에 안주하며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의 힌두 민족주의 캠페인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전면에 나서서 BJP 의 선동을 비판했음. 이러한 모습은 그와 VCK 의 대중적 인지도를 쌓는 것은 물론, 달릿의 집단 영향력을 쌓기에도 충분한 것이었음.

- ✔ 이와 같이 달릿의 목소리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대중문화, 특히 영화계에서도 달릿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에서 탄생한 달릿 영화들은 인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로 인도 전역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음.

3. 범인도 영화의 유행

- ✔ 남인도 영화가 인도 전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떠오르면서 소위 ‘범인도 (pan-Indian) 영화’라 불리는 작품들이 최근 인도 영화계 트렌드로 떠올랐는데, 범인도 영화란 각기 다른 지역의 배우, 연출가, 자본이 한 작품에서 협업하여 여러 지역 언어로 더빙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인도 전역에 개봉하는 작품을 말함.
- ✔ 이전에도 힌디 영화와 남인도 영화 간 협업이 존재했으나, 흥행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음. 하지만 근래의 유행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후발리(Baahubali)> 시리즈를 시작으로 <KGF>, <부쉬빠>, <RRR> 같은 남인도 영화의 전국적 성공이 결정적이었음.
- ✔ 특히 라자몰리(S. S. Rajamouli) 감독이 연출한 <바후발리> 시리즈 중 첫 번째 편 <바후발리: 더 비기닝(Baahubali: The Beginning)>(2015)은 1 백억 루피의 수익을 거두면서 델루구권을 넘어 전국의 다양한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음. 이후 <바후발리 2: 더 컨클루전(Baahubali 2: The Conclusion)>(2017)의 힌디 더빙판은 2023 년 <빠탄(Pathaan)>이 등장하기 전까지 역대 최고의 ‘힌디’ 영화로 기록되기도 했음.
- ✔ 이후 제작된 범인도 영화들은 힌디 더빙에서 그치지 않고 볼리우드 배우가 델루구어 영화에 출연하거나 혹은 따밀 출신 감독이 힌디 영화를 연출하는 등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범인도 영화의 범위를 넓혀 나갔음. 그 결과,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개봉한 힌디 더빙판 남인도 영화는 대략 42 편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단 9 편만이 15 억 루피 이상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으나, 개봉작품의 수가 2019 년 이전보다 4 배 이상 증가(Ormax, 2023. 8. 28)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임.
- ✔ 아래의 도표를 보면, 지난해인 2023 년 범인도 영화의 흥행이 얼마나 전국적 현상으로 퍼지게 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음.

26) 마하라쉬뜨라의 인도달릿팬서(Dalit Panther of India)의 카스트 반대 운동에서 영감을 얻어 1980년대 초반 창설된 단체. 인도달릿팬서는 미국의 흑표당(Black Panther Party)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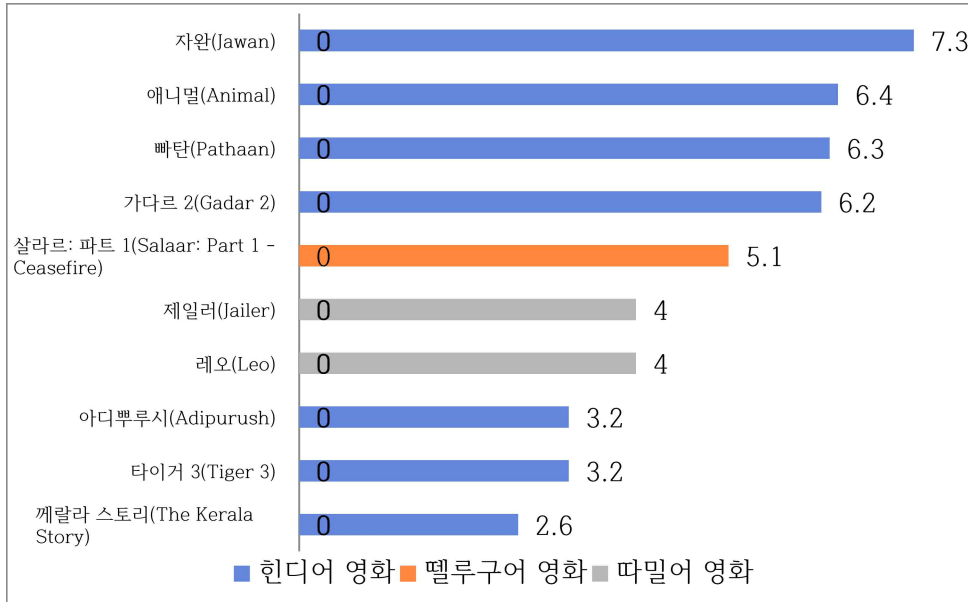


그림 11 | 2023년 개봉작 수입 상위 10위 (단위: 10억 루피) (출처: FICCI & EY March 2024 Report)

- ❖ <자완>이 73억 루피의 흥행 성적을 기록해 1위에 올랐고, 이어서 <애니멀>이 64억 루피, <빠탄>이 63억 루피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음. 상위 10위권 중 힌디 영화가 총 7편이지만 이들 중 <자완>과 <애니멀>, <아디부루쉬>, <살라르>, <제일러>, 그리고 <레오>는 범인도 영화로 분류됨.
- ❖ <자완>의 경우, 연출가는 따밀 출신이지만, 제작 언어는 힌디인데, 또한 남자 주인공에 샤 루 칸(Shah Rukh Khan)이라는 볼리우드 최고의 인기 배우를 캐스팅하였고, 상대역은 따밀어권 스타 나얀타라(Nayanthara)가 맡아 협업을 이루었음. <애니멀>과 <아디부루쉬>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며, <살라르>와 <제일러>, <레오>의 경우 텔루구어 및 따밀어로 제작되어 힌디로 더빙된 후 범인도적 인기를 얻은 영화임.
- ❖ 이들 범인도 영화의 특징이 여러 지역 영화 산업 간의 협업인 만큼, 영화는 전국 각지의 관객이 두루 즐기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함. 특히 형태면에서는 오락영화로서 액션을 갖춰야 하고, 내용면에서는 보편적 주제와 소재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때 힌두교 신화와 힌두의 역사는 창작자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소재임.
- ❖ <바후발리>는 선택받은 전사가 왕위를 되찾는다는 내용으로 『마하바라타』의 줄거리와 상당 부분 비슷하며, <RRR>은 두 주인공을 힌두교 신 람(Ram)과 하누만(Hanuman)처럼 보이도록 설정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라마야나 (Ramayana)』²⁷⁾의 이야기를 환기시키고 있음.
- ❖ <아디부루쉬>의 줄거리 역시 주인공 람이 악마의 왕 라반(Ravan)에게 납치된 아내 씨따(Sita)를 구출하는 과정 담은 것으로 『라마야나』의 서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 지난 6월에 개봉한 <깔끼 2898 AD(Kalki 2898 AD)>는 2024년 가장 기대를 모은 범인도 영화인데, 이 작품 또한 힌두교 신

27) 발미끼(Valmiki)에 의해 쓰인 쌍쓰끄리따م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와 함께 인도의 2대 서사시로 꼽힌다. 제목의 의미는 ‘람(또는 라마)의 일대기’이며, 힌두교 신 비슈누의 일곱 번째 화신인 고대 영웅 람의 모험과 영웅적 활약을 그리고 있다. ‘람 이야기’ 전통의 시초로서 인도의 여러 언어로 된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슈누(Vishnu)의 열 번째 화신인 깔끼(Kalki) 이야기와 『마하바라따』 등의 신화를 SF 액션 장르로 변형시킨 것임. 개봉 15 일차 만에 전 세계 흥행 수입이 1 억 달러를 넘음으로써²⁸⁾ 2024 년 최고의 영화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 이러한 범인도 영화의 성공은 남인도 영화계는 물론 인도 영화 전반에 새로운 흥행 공식을 세우며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

28)

<https://www.hindustantimes.com/entertainment/telugu-cinema/kalki-2898-ad-worldwide-box-office-collection-day-15-prabhas-deepika-padukones-dystopia-crosses-1000-crore-101720711344517.html> (2024. 08. 20. 접속)



IV. 텔루구 영화, 톨리우드(Tollywood)

1. 텔루구 영화의 현황

- ✔ 텔루구(Telugu)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Teluguvāru)은 2011년 센서스 기준으로 인도 내에 8,112 만 7,740 명이 있고 총 인구의 6.70%에 해당하며 제 2 언어 (1,194 만 6,414 명)와 제 3 언어(100 만 1,493 명)으로 사용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총 9,412 만 7,740 명에 이르고 이는 총 인구의 7.77%에 해당하는 규모임.
- ✔ 제 1 언어 기준 힌디(3 억 2,223 만 97 명 26.61%) 벵갈리(9,723 만 7,669 명, 8.03%) 마라티(8,302 만 6,680 명, 6.86%)에 이어 네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²⁹⁾ 다섯 번째 위치의 따밀(6,902 만 6,881 명, 5.70%)에 비하면 남인도 언어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지는데, 따밀을 제 2 언어 제 3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 포함 7,702 만 6,881 명 6.36%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비중의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 텔루구와 연관된 논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외 이주 텔루구 사용자들인데, 이들의 네트워크는 곧바로 텔루구 문화산업의 국제적 유통구조의 근저를 이루기 때문임. 예로 미국에 있는 텔루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2017년 기준 총 41 만 5,414 명이며³⁰⁾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86%가 증가해서 2017년 기준 40 만명 이상이 있음.
- ✔ 특히 주목할 점은 여러 언어들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서 아랍어(42%)와 힌디(42%)보다도 증가 속도가 빠른 언어라는 사실임. 물론 화자의 절대 규모와 증가자 수의 절대 규모는 중국어(653,000), 아랍어(363,000), 힌디(254,000)보다 작지만 최대 1 만 92,000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네 번째 증가를 보인 언어임.³¹⁾
- ✔ 텔루구 사용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안드라쁘라데쉬(Andhra Pradesh)와 텔랑가나(Telangana)³²⁾이며 작은 규모이지만 부두체리(Puducherry)³³⁾의 야남 지구(Yanam district)에도 거주하는데, 그 분포를 지도로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9) 2011년 센서스 자료 기준, 데이터 출처는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languages_by_number_of_native_speakers_in_India (2024. 05. 15 확인)

30) Zeigler and Camarota 2018, 4.

31) Zeigler and Camarota 201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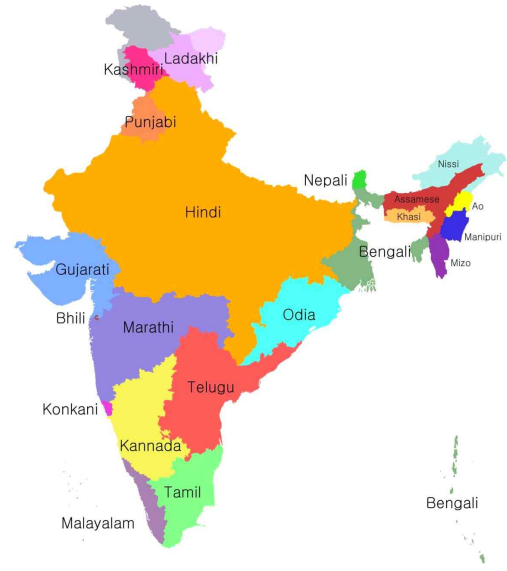
32) “텔루구 사람들의 땅”이라는 의미의 “Telangana”라는 용어는 14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예전 프랑스 식민지였던 Pondicherry의 이름을 2006년 10월 1일자로 변경한 것이고, 지금은 연방직할지이며 네 곳의 서로 떨어진 지역들을 묶어서 가장 큰 지역의 이름인 Pondicherry를 따서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야남의 경우 지리적으로 텔루구 사용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림 12] 푸두체리 (옛 폰디세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Puducherry>)



[그림 13] 인도의 지역 언어 개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languages_by_number_of_native_speakers_in_India)

- ✔ 고대부터 펠루구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안드라”(Andhra)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 안드라의 최초 국가는 싸따바하나(Satavahana) 왕조(기원전 2세기 말부터 기원후 3세기 초)인데 로마제국과도 교역을 했고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는 고대 펠루구 문자 (Vengi)의 사용 기록이 남아 있음.
- ✔ 찰루까 왕조는 두 서로 다른 왕조를 부르는 이름인데, 서찰루까(Western Chalukyas, 543-757) 그리고 약 975-약 1189)는 주로 서부 데칸 지역을 동찰루까(Eastern Chalukyas, 약 624-1070) 동부 데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음.
- ✔ 서찰루까의 주요 도시는 바다미(Badami)와 깔라니(Kalyani)에 있었고 현재의 까르나타까(Karnataka) 지역에 활동하던 칸나다(Kannada) 사용자들의 나라였으며, 동찰루까는 초기에는 벙기(Vengi)에 있었고 주로 안드라 브라데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왕조였는데, 동찰루까의 수도는 원래 벙시따뿌라(Pishtapura)였다가 벙기 (Vengi)로 옮겨졌고 나중에는 라자마헨드라바람(Rajamahendravaram)이 되었음. 동찰루까 왕조는 출라(Chola)와 서찰루까 사이에서 숭한 무력 충돌의 장이 되었지만, 펠루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펠루구 문학을 발전시킨 시기이기도 했고, 펠루구인들의 최대 전성기는 비자야나가라(Vijayanagara, 1336-1646) 제국³⁴⁾ 시기 라고 할 수 있음.
- ✔ 1947년 인도가 독립을 맞았을 때 하이데라바드의 무슬림 통치자(Nizam of Hyderabad)는 독립 국가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력 진압되었고 1948년에 하이데라바주 (Hyderabad State)로 인도령(Dominion of India)에 포함되었음.
- ✔ 안드라(Andhra)지역은 언어 기준으로 주 경계가 설정된 최초의 주가 되어 1953년 마드라스 관구(Madras Presidency)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나서 1956년 안드라주(Andhra State)는 펠루구를 사용하는 하이데라바주(Hyderabad State)의 일부와 병합되어 새로운 안드라브라데쉬(Andhra

34) 비자야나가라 제국은 남인도 전역에 걸쳐 넓은 영역을 통치했으며, 오늘날의 까르나타까, 안드라브라데쉬, 따밀나두 주 일부를 포함하는 영토를 이루었고, 수도는 함삐(Hampi)였다.

Pradesh)주를 구성하게 되었음. 그러다가 2014년 2월 인도 하원은 당시 안드라쁘라데쉬 주의 10개 지구(district)들을 따로 묶어 텔랑가나 (Telangana)주를 분리하는 안을 통과시켰음.

- ❖ 이런 역사적 연유로 지금 하이데라바드가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고³⁵⁾ 그래서 지금의 “Tollywood”는 사실 하이데라바드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할 해야 적절함. 지리적으로 필름나가르(Film Nagar)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틴셀타운(Tinsel Town/Tollywood 로도 불림)은 텔랑가나의 하이데라바드 서부에 있는 지역임. 텔루구 영화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스튜디오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고³⁶⁾ 수많은 텔루구 영화 스타 배우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³⁷⁾ 한데, 이곳은 반자라힐스(Banjara Hills) 지역 안에서 ‘주빌리힐스(Jubilee Hills)’라고 불리는 곳의 일부임.
- ❖ 텔루구 영화는 2021년 총수입액(box-office) 기준으로 인도 최대의 영화산업이었음. 텔루구 영화는 2022년에 2억 3,300만장을 판매했고 이는 인도 영화산업계 최대 수치였고, 텔루구 영화는 시각효과 등의 특수효과 및 영화 촬영 기법 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그리고 ‘라모지필름시티(Ramoji Film City)’라는 1,666 에이커 (6.74 Km²) 이상의 면적을 갖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최대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로 등재되어 있는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음.
- ❖ 그래서 텔루구 영화산업은 인도 역사상 최대 제작비와 최대 수익을 얻은 영화들을 생산해 낸 곳으로도 유명한데, <바후발리 2: 더 컨클루전(Bahubali 2: The Conclusion)>(2017)은 인도 역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영화로 남아 있음. 이 영화는 라자몰리(S. S. Rajamouli)가 감독한 시리즈물이었는데, ‘마히쉬마띠(Mahishmati)’라는 전설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쉬부두(Shivudu, 일명 Mahendra Baahubali)’라는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며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정당성을 가진 왕위를 회복하는 영웅담이 이야기의 뼈대임. 1편에서 이미 인도 영화의 기존 스케일을 능가하는 특수효과와 액션 장면들 때문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음.
- ❖ 2010년 이후로 텔루구 영화는 전인도 영화로 도약하는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 <바후발리 2: 더 컨클루전(Bahubali 2: The Conclusion)>(2017)이 새턴상 외국영화상 (Saturn Award for Best International Film)을 받았고, RRR은 미국영화평의위원회 10대 영화상(National Board of Review's Top Ten Films)에 등극한 영어 영화가 아닌 두 번째 영화라는 기록을 세웠음.

35) 하이데라바드는 1591년 쿠티 샤히(Qutb Shahi)왕조의 5대 왕인 무함마드 쿨리 쿠티 샤히(Mohammed Quli Qutub Shah)가 세운 도시인데 2014년 안드라쁘라데쉬 재조직법(Andhra Pradesh Reorganisation Act, 2014)의 5조에 따라 하이데라바드는 텔랑가나와 안드라쁘라데쉬의 공동 수도로 10년간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4년 6월 2일이 통일 안드라쁘라데쉬가 공식 분할된 날자이니까 2014년의 같은 날에 안드라쁘라데쉬는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 했다. 2023년 1월 31일 안드라쁘라데쉬의 주지사 레디(Y. S. Jagan Mohan Reddy)는 비사카빠트남(Visakhapatnam)을 새로운 수도로 선포했는데 동시에 3개 수도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그래서 기존 수도인 아마라바띠(Amaravati)를 입법 수도로, 쿠르놀(Kurnool)을 사법 수도로 그리고 비사카빠트남(Visakhapatnam)을 행정 수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2024년 선거에서 찬드라바부 나이두(Chandrababu Naidu)가 이끄는 텔루구나라당(Telugu Desam Party, 이하 TDP)가 다시 집권하면서 수도가 아마라바띠로 정해졌다.

36) Ramanaidu Studios, Annapurna Studios, Ramakrishna Studios, Padmalaya Studios, Sabdhalaya Theaters, Vaishno Academy, Vyjayanthi Movies, Sri Lakshmi Prasanna Pictures, Sri Venkateswara Creations, Fire Fly Creative Studios, Makuta VFX 등을 꼽을 수 있다. Shilpakala Vedika와 Filmfare Awards South ceremony가 개최되는 Hyderabad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도 근처에 있다.

37) Chiranjeevi, Daggubati Venkatesh, Allu Arjun, Nagarjuna, Junior NTR, Brahmaji, Mohan Babu, Balakrishna 등을 꼽을 수 있다.

- ✔ RRR 은 아카데미 상을 받았고, 그 주제곡 나무 나무(Naatu Naatu)로 골든글러브(Golden Globe)상을 받았으며 동시에 외국어영화 부문 최고 비평가상(Critics' Choice Award for Best Foreign Language Film)에 선정되었음.
- ✔ RRR 은 수준 높은 특수효과와 액션 장면의 압도적인 스케일로 유명세를 탔는데, 촬영 감독 쉐틸 쿠마르(K. K. Senthil Kumar)의 역량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라자몰리 감독의 서사 창출 능력을 잘 살려냈다고 인정 받고 있음. 영국 식민시기를 배경으로 한 사극적이며 사실적인 서사를 허구적인 서사와 섞어 설득력 있게 이끌어 가는 감독의 능력은 다시 인정을 받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음.
- ✔ CNN-IBN 이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인도 영화 100 선(100 Greatest Indian Films of All Time)에 10 개의 텔루구 영화가 포함되어 있음. 텔루구 영화가 상업영화만을 생산한 것은 아니고 인디 영화나 예술영화에도 나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이 필요함. 예로 <다씨(Daasi)> (1988), <틸라다남(Thilaadanam)> (2000), <바나자(Vanaja)> (2006)와 같은 영화들은 베를린,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 모스크바, 부산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을 보여주고 있음.

2. 텔루구 영화의 역사와 차별성

- ✔ 1909 년부터 라구빠티 벤카이아 나이두(Raghupathi Venkaiah Naidu)가 단편영화들을 제작하고 있었고 아시아 주변국들에 가서 상영을 하기도 했음. 이 사람이 최초로 인도인 소유의 극장을 남인도에 세우기도 했으며, 1921년에는 무성영화를 만들었는데, <비스마 브라띠가(Bhishma Pratigna)>가 텔루구 최초의 장편 극영화로 간주됨. 그래서 나이두는 텔루구 영화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임.
- ✔ 최초의 텔루구 유성영화는 <박따 브라흐라다(Bhakta Prahlada)> (1932)인데 레디(H. M. Reddy) 감독의 작품임. 불라이야(C. Pullayya) 감독의 <삐띠 삐비뜨리(Sati Savitri)> (1933)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honorary diploma”를 수상하기도 했는데, 텔루구 영화는 초창기부터 힌두 신화를 주 소재로 다루는 영화전통이 강한 곳이었음.
- ✔ 1930 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흐름도 강해졌는데 <라이투 빃다(Raithu Bidda)> (1939)와 같은 영화가 대표적임.
- ✔ 남인도 영화는 음악과 춤과 액션과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지만 특유의 강한 멜로드라마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면서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전개와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영화 평론가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과거에 일반적이었음.
- ✔ 하지만 문제는 60 년대 말부터 영화 안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담는 다양한 장치들을 배치하는 방식의 영화를 통한 정치 담론의 구축이 일반화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수많은 스타 배우들이 지배적인 정치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구축되어 왔음.
- ✔ 이를 일반적으로 “영화 정치”(cine-politics)³⁸⁾라고 부르는데, 남인도 영화는 영화 정치의 장으로

38) M. Madhava Prasad가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각인시킨 용어이다. 그의 본격적인 단행본이 Prasad, M. Madhava ed. 2013이다. “Cine-politics is a phenomenon independent of participation in electoral politics. It is a supplementary, virtual political regime all by itself. It may parasitically inhabit the parliamentary institutions but is not reducible to an effect of the latter,” Prasad 단행본. M. Madhava

이름이 높고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곳이 따밀나두인데, 안드라 브라데쉬는 그 다음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두 지역의 차이가 있음.

- ❖ 영화 정치의 양상이 남인도 내에서도 달랐는데, 남인도의 세 주에서 영화정치를 대표하는 인물들만 살펴 보더라도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음.
- ❖ 까르나타카의 영화정치를 상징하는 라즈꾸마르(Rajkumar(1929-2006))³⁹⁾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거나 정권을 잡지 않았는데, 엄청난 메가스타였고 국제적인 입지를 지닌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남는 전략을 선택했음. 그래서 깐나다 정체성의 대표 인물이 되었고 이를 통해 여러 사회적 주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치우침 없이 지지를 받는 입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음.
- ❖ 따밀나두의 MGR (1917-1987)은 인도 영화정치의 극단을 보여주는 인물이고, 따밀나두 현대 정치사를 결정한 인물이기도 함.⁴⁰⁾ 안드라브라데쉬의 NTR (1923-1996)은 텔루구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정치를 실행한 인물이었다고 MGR 과는 다른 영화 정치의 양상을 보여주는 인물임.
- ❖ NTR 이 영화 스타에서 성공적인 정치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요인들이 몇 가지 있음. 첫째는 그가 했던 영화 상의 역할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대변하는 영웅적 인물 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정치인생으로 연결되었음. 대중들의 정서적인 애착을 만들 수 있는 맥락이 있었는데, NTR 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타덤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는 여정을 거쳤음.
- ❖ 텔루구 영화에서 신화적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배우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초월적인 지위까지를 함축하는 텔루구 문화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82년 텔루구나라당(Telugu Desam Party, 이하 TDP)을 창당했고 INC 에 대한 대안으로서 안드라브라데쉬에서 텔루구 정체성을 정치화는 길을 구사했음.
- ❖ 특히 그가 직접 유세 여행을 하면서 ‘각성의 전차(Chaitanya Ratham)’라고 불리던 유세 여행을 조직했던 것은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음. 그리고 NTR 은 몇 가지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했고, 여기에는 빈민들에게 쌀과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이 되었고 재직 시에는 교육과 행정 개혁을 위한 정책들도 구사했음.
- ❖ 둘째는 포퓰리즘 정책을 들 수 있음. 비슷한 포퓰리즘은 따밀나두의 MGR 에서도 볼 수 있는데, MGR 이 주지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2~5 세 어린이에게는 시골보호소(Anganwadi)⁴¹⁾에서, 5~9 세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점심 식사 제공 프로그램(The Nutritious Meal Programme)이 1982년 7월 1일에 도입 되었고, 프로그램은 빈민층의 환영을 받았음.⁴²⁾

Prasad 1999. *Journal of the Moving Image* “Cine-politics: on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cinema in south India”.

39) 본명은 Singanalluru Puttaswamaiah Muthuraj인데 일반적으로는 “Dr. Rajkumar”로 불린다.

40) Velayutham ed. 2008.

41) 앙간와디(Anganwadi, “시골 보호소”)는 시골지역 아동보호센터를 부르는 이름이다. 1975년 인도 정부가 통합어린이 발전지원 프로그램(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program)의 일부로 기아와 영양실조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도입했다.

42) T. Ramakrishnan. 2023-08-29. “How Tamil Nadu created history through mid-day meal scheme”은 따밀 나두에서 이미 1920년 11월 16일에 Thousand Lights에 있는 마드라스 공립학교에서 간단한 점심을 제공하는 시도

- ❖ 이러한 지향성이 영화적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그의 입지가 고정되는 효과가 있었음. 이런 지지세는 MGR 이 DMK 에서 탈당한 이후 1972 년에 AIADMK 을 창당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기반이 되었는데, NTR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차이가 있었음.
- ❖ 따밀나두의 MGR 은 드라비다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NTR 은 다르게 까마(Kamma) 카스트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반대로 빠완 깔란(Pawan Kalyan)은 까부(Kapu), 까말 하싼(Kamal Hassan)은 브라흐만 출신다운 보편주의를 주장했음. NTR 이나 MGR 의 성공이 단순히 영화배우로서의 인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대목이 있음.
- ❖ 큰 틀에서 델루구 언어권이 따밀나두와 다른 점을 주목할 필요도 있음. 델루구 언어권은 지리적으로 북인도와의 접촉 기회가 많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무역과 이주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의 면에서 북인도와 강한 역사적 교류관계를 유지해 왔음.
- ❖ 불교전통만 하더라도 이미 강하게 안드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온 역사가 있고, 정치적인 지배관계만 보더라도 이미 1323 년에 델리 술탄국들 중의 하나인 투르크(Tughluq) 왕조에서 술탄 투글루크(Ghiyath al-Din Tughluq) 울룩 칸(Ulugh Khan)⁴³⁾이 이끄는 군대를 보내 안드라 지방을 정복한 바 있음. 후에 무쑤누리 나약(Musunuri Nayak)⁴⁴⁾이 델리 술탄 세력을 물리치면서 독립성을 회복했지만 이 지역은 이미 이 시기부터 델리의 터키, 페르시아-타직 (Persio-Tajik)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
- ❖ 힌디는 현재 인도에서 입지가 가장 강한 언어이고 중앙정부가 자리잡은 델리 지역을 포함한 정치적 주도권을 가진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임. 따라서 힌디를 하는 것은 취업 시장에서 강한 장점이 될 수 있고 델루구 사용자들이 힌디를 배울 만한 다양한 현실적 요인들이 있음.⁴⁵⁾
- ❖ 또한 안드라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직업과 여타 가능성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는 경우도 많은데, 대중문화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볼리우드 영화들이 힌디를 사용한다는 점도 힌디에 대한 저항감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델루구 영화나 콘텐츠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더빙을 해서 상영되는데, 힌디 영화도 델루구 사용 지역에서는 더빙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델루구 사용권의 정치 세력들은 힌디에 대한 저항이 따밀 나두의 경우처럼 강하지 않았음. 특히 힌디를 자신들이 가진 델루구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 또한 따밀나두와 안드라브라데쉬는 그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양상이 달랐음. 이는 극적으로 급진 좌파의 성격이 양 주에서 아예 달랐던 데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 안드라브라데쉬에서는 낙살운동(Naxalite movement)에 급진 좌파의 뿌리가 있음.
- ❖ 서벵갈주 낙살바리(Naxalbari)에서 1967 년 시작된 낙살 운동은 주변의 주들로 퍼져 나갔는데

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미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3) 나중에 'Muhammad bin Tughluq'이라는 이름으로 술탄이 되었다.

44) 무쑤누리 나약은 14세기 경 남인도 지역에서 지금의 안드라브라데쉬와 델랑가나 지역에 강성했던 세력이다. Musunuri Kapaya Nayaka이 안드라 지역 지역 통치자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Warangal에서 당시의 델리 술탄 세력을 몰아냈다. 하지만 머지 않아 델리 술탄의 반격에 패배해서 Recherla Nayak 집단이 1368년에 그위 지배권을 빼앗았다.

45) 2011년 센서스에 따르면 힌디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은 43.63%인데, 델루구 화자들 중에서도 대도시와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들은 힌디를 구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안드라쁘라데쉬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토지 소유의 편중, 빈곤, 부족민들의 소외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그래서 안드라쁘라데쉬는 낙살의 좋은 근거지가 되었고, 특히 1980년 형성된 인민전쟁그룹(People's War Group, PWG)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나중에 마오주의공산센터(Maoist Communist Centre of India, MCCI)와 합쳐져서 2004년에는 마오주의인도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 (Maoist))를 형성함.

- ✔ 시골지역의 빈민과 부족민 공동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이 실패한 토지개혁으로 인해 이들을 지지했고 울창한 밀림 지역은 좋은 활동 지역이 되어 게릴라전이 가능하게 했음. 주정부는 군사작전과 사회경제적 대응을 병행했는데, '그레이하운드(Greyhounds)'라는 낙살 박멸을 위한 경찰 특수부대 작전 등이 무력 진압의 전형이었음.
- ✔ 따밀나두는 그 극좌파의 성격이 달랐음. 이곳에서 낙살들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따밀나두의 토지개혁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고 그리고 사회복지의 제도적 지원이 안드라쁘라데쉬보다 나았음. 결국 낙살들은 산발적인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따밀나두의 드라비다 운동은 지역적 자긍심과 사회정의 그리고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치 아젠다를 지배했음. 이 아젠다들의 지배 하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기초한 정치 구호들은 큰 반향을 불러오지 못했고, 또한 따밀나두의 극좌파에 대한 물리적 탄압은 훨씬 즉각적이기도 했음.
- ✔ 현재도 낙살에 대한 대응책들이 있었지만 안드라쁘라데쉬에서는 펠랑가나, 오디샤, 찻띠스가르와의 경계에 있는 변방 지역에서 마오리스트 투쟁들이 이어지고 있음. 다양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영향력이 급감했지만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CPI (Maoist)가 활동을 하고 있음.
- ✔ 반면 따밀나두에서는 현재 거의 극소한 정도의 극좌익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나 사회복지 정책과 교육 그리고 포용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임. 물론 여기에는 안드라쁘라데쉬 지역이 밀림 지역을 포함하고 산악지역이 있다 보니 생기는 차이가 있고, 따밀나두는 더 도시화된 지역이기도 하다는 요소가 작용함. 그리고 강력한 드라비다 정체성 정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초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주었음.
- ✔ 이러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펠루구 영화의 상업적 흥행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따져보아야 함.
- ✔ 펠루구 영화계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시장의 압력이 강한 곳이었고, 동시에 안드라쁘라데쉬의 지역 문화를 반영하는 전통이 강했음.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인데, <바후발리>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 그리고 펠루구 영화는 새로운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이를 차용하는 면에서 항상 앞서가고 있었는데, CGI 라거나 VFX와 같은 효과음 기술에 대해서도 앞서 있었음. 그리고 충족한 자본은 새로운 미디어 지형에 맞추면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펠루구 영화 자체의 국제 유통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 맥락에서 중요했음. 이를 통해 펠루구 영화는 국제적인 호소가 가능한 서사구조를 차용하는 일에서 앞서갈 수 있었음.
- ✔ 펠루구 민족주의의 영향을 지울 수 없는 정치지형에서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지원책도 상당한 역할을 했음. 라모지필름시티(Ramoji Film City)와 같은 스튜디오의 건설이 큰 역할을 한 것도 당연하며, 또한 라자몰리(S. S. Rajamouli), 프리비끄람 쉬리니바스

(Trivikram Srinivas), 썬쿠마르(Sukumar)와 같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감독들도 활동하고 있는 무대였고, 아주 많은 메가스타급 영화배우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이기도 했음.

- ✔ 게다가 시대가 바뀌어 OTT 플랫폼이 영화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를 맞았고, 이는 힌디 영화가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유통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음.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지와 홍보를 함께하는 팬층이 강하다는 것도 큰 역할을 했음.
- ✔ 따밀나두의 팬클럽은 실제로 당의 지구당 사무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만큼 강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서 안드라쁘라데쉬의 경우와 비교하기는 무리임. 하지만 이만큼 강하게 결속된 조직이 영화 홍보의 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다른 질문이 되고 마는 측면이 있음. 특히나 세부 지역단위마다 카스트 중심으로 조직된 팬클럽들이 정치적 활동을 지속할 때 현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V. 인도 영상 콘텐츠 산업 전망 및 시사점

- ❖ 남인도 영화의 전국적 인기와 이로 인한 범인도 영화의 유행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흥행에 성공한 범인도 영화의 상당수가 힌두교 신화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과 이에 더하여 힌두 역사 다시 쓰기를 통해 힌두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는 내용의 소위 ‘힌두뜨바 영화(hindutva cinema)⁴⁶⁾가 최근 십여 년 사이 급증한 점은 현 집권 여당이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BJP 라는 사실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큼.
- ❖ 일례로 <RRR>의 주인공 라주(Raju)는 캐릭터의 영감이 된 실존 인물이 부족민이었으나 힌두교도로 재설정되었고, 영화 후반부 클라이맥스에서는 마치 힌두교 신 람(Ram)처럼 묘사되어 적군(영국)을 물리치는 장면이 논란이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인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음.
- ❖ <까쉬미르 파일(The Kashmir Files)>(2022)과 <깨랄라 스토리>는 힌두교 신화를 차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슬림을 적대시하는 내용으로 왜곡된 정보를 주입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하지만 BJP 소속 정치인들은 공식석상에서 이 영화들의 관람을 독려하고, 심지어 BJP 가 집권하는 주에서는 세금 면제 혜택을 주기도 했고, 2014 년 이후 이러한 힌두뜨바 영화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볼리우드 영화의 힌두화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
- ❖ 이에 범인도 영화가 힌두교 신화를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흥행이 보장됨은 물론, 현 정부의 성향에도 부합하는 공식이 된 상황.
- ❖ 이와는 반대로 여당 및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의 빈번한 보이콧과 상영금지 시위로 타격을 받은 영화와 콘텐츠도 적지 않았음. 영화 <빠드마와뜨(Padmaavat)>(2018)와 <안나뿌라니: 음식의 여신(Annapoorani: The Goddess of Food)>(2023), 넷플릭스 (Netflix) 오리지널 시리즈 <수터블 보이(A Suitable Boy)>(2019)와 프라임비디오의 <판다우(Tandav)>(2021) 등은 특정 장면이 소위 힌두교도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제작자와 배우들은 사과 성명을 내고(<수터블 보이>, <판다우>) 제목을 바꾸거나(<빠드마와뜨>) 혹은 OTT 플랫폼에서 삭제(<안나뿌라니>)되는 일을 겪어야 했음.
- ❖ 이상의 맥락에서 검열과 창작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음. 지난 2020 년, 인도에서 서비스 중인 프라임비디오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핫스타(Disney Plus Hotstar), 지파이브(Zee5), 지오시네마(Jio Cinema) 등의 15 개 OTT 업체는 자체검열조례 (Self-Regulation Code)를 통해 자신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⁴⁷⁾.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46) 힌두뜨바(Hindutva)란 BJP의 정당 이데올로기로 반영된 힌두국수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도를 힌두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이 담긴 영화를 ‘힌두뜨바 영화’라 부른다. 그리고 이 영화들은 보통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화와 힌두 역사를 재창조하는 영화로 나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토일렛: 에크 뽀렘 까타(Toilet: Ek Prem Katha)>(2017), <우리: 서지컬 스트라이크(Uri: The Surgical Strike)>(2019), <미션 망갈(Mission Mangal)>(2019), <아티클 370(Article 370)>(2024) 등이며, 후자의 예시로는 <빠니빠뜨(Panipat)>(2019), <판하지(Tanhaji)>(2020), <사므라뜨 프리트비라즈(Samrat Prithviraj)>(2022) 등이 있다.

과도하게 개입하여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한 OTT 업체들이 오랜 기간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었던 셈.

- ❖ 이러한 제작 환경은 창작자들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검열 문제 때문에 영화관에서 ‘형식적 개봉(token release)’을 택하는 영화들이 생겼는데, 이는 영화가 단지 OTT 공개를 위해 단기간 동안만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상황을 말함⁴⁷⁾.
- ❖ 영화관 개봉작이 OTT로 공개되기까지는 8주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을 앞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화들이 규정상 최소 기간인 4주 만을 채우거나 홍보도 생략한 채 개봉하는 이유는 OTT 업체들의 검열 위험부담에 따른 비용 전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 정부의 과도한 검열과 정부 지지자들의 극렬한 보이콧으로 인해 OTT 업체들은 논란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고, 따라서 OTT 플랫폼에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작품을 공개하고자 하는 제작자들은 OTT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영화관 선개봉을 택함으로써 정부의 검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온전히 안게 된 상황.
- ❖ 이러한 경우 제작자들은 제한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소재와 내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 관객들은 다양한 영화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 ❖ 이상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콘텐츠가 인도로의 진출을 모색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의 검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 특히 종교로 인한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된 현 인도 사회에서 종교 간 긴장을 유발하거나 특정 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
- ❖ 또한 2장에서 주지하였듯, 지자체별 영화 개봉 및 OTT 플랫폼에서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폭넓은 사전조사가 필수적.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도 주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요소는 인도의 영화 관객과 OTT 시청자들이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 남인도 영화가 부상할 수 있었던 원인이서 확인하였듯이, 지역적 특색은 살리되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이러한 흐름 안에서 남인도의 영화 산업이 지니는 특징적 면모로서의 영화정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사료됨. 인도의 새로운 국가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인도(One India)’ 이데올로기가 스타들의 정치적인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영화정치를 통한 방식으로 표발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도 전체가 ‘새로운 인도’로 동질화된다면 인도 전역을 지배하는 영화 정치가

47)

<https://www.hindustantimes.com/bollywood/ott-platforms-sign-self-regulation-code-in-india-heres-what-the-platforms-and-experts-have-to-say-about-it/story-WJKgyvV8Fo1c9fhBgk1XJJ.html> (2024. 08. 20. 접속)

48)

<https://www.hindustantimes.com/htcity/cinema/dhak-dhak-to-shiv-shastri-balboa-why-are-films-opting-for-token-theatrical-release-before-heading-to-ott-101698412071711.html> (2024. 08. 20. 접속)

가능할 것인가의 질문이 대두됨.

- ✔ 통합 인도를 지향하는 영화 정치는 결국 동질화를 의미하고 지배 정당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공간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제 개별 스타들이 자신들만의 지지자들을 규합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이러한 흐름은 남인도 영화산업을 규정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와 맞물린 남인도 영화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성용 2020. 「쌍쓰끄리팜과 암벤키르(Ambedkar)의 소환 그리고 고대사 재구성과 인도 현대 정치의 규정요소로서의 언어」, 『아시아리뷰』 10.2: 165-194.
- Abraham, Joshil K. and Judith Misrahi Barak 2023. *The Routledge Companion to Caste and Cinema in India*. Abingdon: Routledge.
- Bhatia, Amit 2023. "Pan India Films: An Optimistic Gamble", Ormax Media 2023/08/28.
- Damodaran, Karthikeyan & Hugo Gorringer 2017. "Madurai Formula Films: Caste Pride and Politics in Tamil Cinema", *South Asia Multidisciplinary Academy Journal*.
- FICCI & EY March 2004. #Reinvent: India's Media & Entertainment Sector Is Innovating for the Future
- Hardgrave, Jr., Robert L. 2008(1973). "Politics and the Film in Tamilnadu: The Stars and the DMK", In Velayutham, Selvaraj eds., *Tamil Cinema: The Cultural Politics of India's Other Film Industry*. Abingdon: Routledge, 59-76.
- Jha, Lata 2021. "Multiplexes on track to expand footprint in south India Dominated by single screens, growth opportunity for multiplex chains down south is driving investments", Live Mint 2021/01/25.
- Kulkarni, Sanket 2024. "Indian Cinema's Cultural Crossover", Ormax Media 2024/01/30.
- Lee, Joseph Tse-Hei and Satish Kolluri eds. 2016. *Hong Kong and Bollywood: Globalization of Asian Cinema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ehta, Rini Bhattacharya and Rajeshwari V. Pandharipande eds. 2010. *Bollywood and Globalization: Indian Popular Cinema, Nation, and Diaspora*. London: Anthem Press.
- Mishra, Bikas 2018. "Is Bollywood Scared of Dalit Love?", *The Hindu* 2018/07/28.
- Mode, Sophie 2023. "Bollywood's Blockbusters: The Rise of the Indian Multiplex Theater and its Impacts", *Mediapolis Journal* 2023/06/12.
- Ormax Media 2024. "Threat From the South: Bollywood's Story Problem", *Ormax Media* 2024/07/12.
- Pillai, S. E. 2015. *Madras Studios: Narrative, Genre, and Ideology in Tamil Cinema*. New Delhi: Sage Publications India.
- Prasad, M. Madhava ed. 2013. *Cine-Politics: Film Stars and Political Existence in South India*. Hyderabad: Orient BlackSwan.
- Raghavendra, M. K. 2017. *Beyond Bollywood: The Cinemas of South India*. Noida: Harper Collins Publishers India.
- Rai, Amit S. 2009. *Untimely Bollywood: Globalization and India's New Media Assemblag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Srinivas, Lakshmi 2002. "The Active Audience: Spectatorship, Social Relations and the Experience of Cinema in India", *Media, Culture & Society* 24(2), 155-173.

Shiga, Miwako 2014. "Towards Independence: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In Noboru Karashima eds., *A Concise History of South India: Issues and Interpretation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302-313.

Velayutham, Selvaraj 2008. *Tamil Cinema: The Cultural Politics of India's Other Film Industry*. Abingdon: Routledge.

Velayutham, Selvaraj & Vijay Devadas 2021. *Tamil Cinema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ste, Gender, and Technology*. Abingdon: Routledge.

Yengde, Suraj 2018. "Dalit Cinema", *South Asia: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41(3) 503-518.

Zeigler, Karen and Steven A. Camarota 2018. "Almost Half Speak a Foreign Language in America's Largest Cities. Nationally, One in five spoke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n 2017."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September 2018.

그림 출처

mapsofindia.com

imdb.com

thequint.com

hollywoodvsbollywood.e-monsite.com

인도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오현전 센터장 +91-97-7351-0448 ho@kocca.kr

Riya Thakkar 담당자 +91-11-4334-5045 koccaindia@gmail.com